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27 호

2016 년 01 월 15 일

- 목 차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실 이전 안내
2.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3. SDGs 캠페인 안내

UNGC 본부 소식

1. 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 2016년 비즈니스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행동 촉구
2. 글로벌콤팩트 프랑스협회, COP 21 기후정의에서의 민간부문 역할 강조
3. 글로벌콤팩트 과테말라 협회 발족

UNGC 회원사 소식

1.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새 윤리강령 발표하고 윤리경영 다짐
2. 코웨이, 세계 최초 정수기 '물 발자국' 검증 획득
3. [여성친화-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풀무원] 이명희 인사기획실장 인터뷰

협회 동정 및 정책

1. 신규 가입 회원
2. COP/COE 제출 회원
3. 2016 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 정책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실 이전 안내

2016년 1월 18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그 동안 지내온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을 서울 중구로 이전하였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밑거름 삼아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추진을 돕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층
- 전화: 02-749-2149/2150/2182, FAX: 02-249-2148
-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약도



- 오시는 길

*지하철

- ① 중각역 4번 출구, ②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각 도보 5분

*버스

간선 103, 143, 151, 162, 163, 172, 201, 262, 401, 406, 701, 704, N15, N62

지선 7017, 7021, 7022

급행 8110

2.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후원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에서는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준법·윤리 경영 중진 활동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전세계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올해부터 3년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 윤리 경영 교육, 연구 및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5개 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도, 해외건설)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 프로젝트를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까지 철도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 주최로 각각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산업별 반부패 교육 및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fairplayerclub.kr)

페어플레이어클럽은 각 산업의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에서 페어플레이(Fair Play)를 서약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18일 반부패 서약 선포식(국제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단계 :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노력 서약서 작성 (1월 27일까지 회신)
- 2 단계 : 페어플레이 서약 선포식(국제포럼) 참석(기업 대표 혹은 임원)
- 공동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타 5개 업종별 산업 협회
- 주 관: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후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3. SDGs 캠페인 안내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17개 목표와 각 목표에 연계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Global Goal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해 슬로워크와 함께 SDGs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표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365일, 매일 여러분에게 SDGs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acebook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본부 소식

1. 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 2016년 비즈니스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행동 촉구

(2015년 12월 22일) 지난 2015년 12월 7-8일 개최된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COP21) 의 “[기후에 대한 배려 \(Caring for Climate\)](#)” 포럼에서 글로벌콤팩트 프랑스협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선도적인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남아공, 그리고 스페인에서 온 대표자들은 가치사슬이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로 변함에 따라 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트레이닝, 행사, 출판과 국가간의 협력 방안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가 전세계 기업들이 기후행동에 동참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들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좀 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유엔의 가치와 원칙 전파, 그리고 광범위한 비즈니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들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전 세계 크고 작은 모든 기업들을 접촉하고, 그들이 조금 더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돕고 있는 각 국가 협회들은 글로벌 기구로 글로벌콤팩트의 핵심이 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2016년, 글로벌콤팩트 협회들은 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세부적인 기후변화 정책 및 행동을 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Flickr 에서 행사 사진 보기](#)

[-미팅리포트 다운로드 받기\(불어\)](#)

[-글로벌콤팩트 프랑스협회에 대해 알아보기](#)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에 대해 알아보기](#)

2. 글로벌콤팩트 프랑스협회, COP 21에서 기후정의에서의 민간부문 역할 강조

(2015년 12월 22일, 파리) 파리에서 개최된 COP 21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해 과감히 결단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12월 10일, [글로벌콤팩트 프랑스협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권 영향 대응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업과 기후 정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Mary Robinson 재단](#)의 Mary Robinson 회장이 사회를 본 동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의 사회 및 경제적 결과와 기업들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이를 인식하고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수에즈 인바이론먼트(Suez Environnement), 사노피(Sanofi), [유엔난민 기구\(UNHCR\)](#) 그리고 [기업과 인권 센터\(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의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연 재해들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들은 자원, 땅, 질병, 피난민,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동 행사에서는 기후와 인구 영향에 대해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공급망에서 모든 관계자와 협업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지역 회복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의 기업의 역할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

즈니스가 더 많은 책임감과 투명성, 혁신 그리고 UN 기구들, 시민사회, 금융권, 학계와의 협력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Mary Robinson재단의 Mary Robinson 회장이 COP 21에서 기후변화의 사회 및 경제적 결과들에 대해 연설함.

[-민간부문에서 채택된 실질적 행동 \(practical actions\)에 대해 알아보기](#)

[-Flickr 에서 행사 사진 보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랑스 협회에 대해 알아보기](#)

3. 글로벌콤팩트 과테말라 협회 발족

(2015년 12월 7일, 과테말라) 지난 12월 7일 과테말라 도시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과테말라 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마우리코 로페즈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소장과 조지 에스코타 글로벌콤팩트 콜롬비아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UNGC 본부와 조지 에스코타 협회장이 투자의향서(LOI)를 공식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80명이 넘는 과테말라 기업 대표들을 비롯해 UN, 시민 사회, 학계, 정부 및 공공부문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로페즈 지부장과 에스코타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과테말라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로페즈 지부장은 최근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와 관련된 UNGC의 계획

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국제컨설팅회사에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 협회들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지 네트워크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역할을 차지하는 국제컨설팅 업체에 이어 글로벌콤팩트의 목표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워크숍에서는 50 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기업관행을 위한 [bottom-up 전략적 접근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다른 글로벌콤팩트 협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현지-세계 통합방법을 참석자들에게 간략히 소개하며 현지 참여기회를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내재화하고 SDGs에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UNDP 보도 자료 보기](#)

[-글로벌콤팩트 협회에 대해 알아보기](#)

[-SDGs 이행에 대한 각국 협회의 역할 알아보기](#)

UNGC 회원사 소식

1.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새 윤리강령 발표하고 윤리경영 다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의 새로운 윤리강령인 '코드 원(Code One)'을 발표하고 윤리경영을 다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김 회장이 4 일 지주사 2016 년 시무식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지며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하나금융그룹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 윤리강령(Code One)은 크게 △윤리헌장 △윤리적 판단을 위한 질문 △윤리강령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윤리헌장의 경우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윤리적 판단을 위한 질문은 임직원 스스로가 행동기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실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윤리강령은 총 3 장 25 개의 핵심적인 윤리가치를 담은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제시한다.

[원문 바로보기](#)

2. 코웨이, 세계 최초 정수기 '물 발자국' 검증 획득

코웨이는 국제 공인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으로부터 정수기(모델명 CHP-262N)에 대한 물 사용량을 평가 받고, 해당 냉온정수기(모델명 CHP-262N)는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물 발자국 검증을 획득한 정수기 제품이 됐다.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재료 취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합산해 환경영향을 수치화한 것으로 국제표준기구의 검증 기준인 ISO 14046 의 요구조건에 의해 검증된다. 물 발자국은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과 함께 개인이나 지역, 국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 발자국 지표다.

이번에 검증을 통과한 코웨이 냉온정수기(모델명 CHP-262N)는 고객들의 평균 물 사용량과 최적의 탱크 용량을 반영해 만든 제품으로, 실용성을 인정 받으며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코웨이는 약 1 년 동안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 및 업소 총 300 곳의 물 사용량을 분석하여 고객들이 물 사용량이 많은 때에도 정수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탱크 용량을 정수 2.5L, 냉수 2.5L, 온수 1.0L 로 개발했다.

신광식 코웨이 환경품질연구소장은 "소비자들에게 물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친환경제품 개발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경영정신인 '착한 믿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과 고객을 생각하는 제품을 선보여 환경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문 바로보기](#)

3. [여성친화-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풀무원] 이명희 인사기획실장 인터뷰

“2020년까지 간부급 여성 30% 채울것”

이명희 풀무원 인사기획실장(부사장)이 추진하는 인사정책과 제도, 그 속에 녹아든 경영방침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다. 이 다섯 글자를 곱씹어 보면 그가 어떤 가치관으로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면서 조직원과 소통하고자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풀무원은

'가족친화경영'을 앞세워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안정돼야 회사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원과 가족 모두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내고자 다양한 정책개선과 함께 가족지원제도를 운영했고, 풀무원만의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풀무원은 지난 2009년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제도 도입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제도가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선 직원들의 이해와 인식변화가 바탕이 돼야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선 전 사업 대상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 모니터링, 제도의 사후평가를 위한 각 사업단의 워크숍 등이 이뤄졌다.

"가족친화제 도입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실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수용성을 높여야하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여직원 비율(현재 전체직원의 약 51%)이 높은 업의 특성 덕에 조직원의 이해도가 높았고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신·출산·육아제도를 개선했는데, 임신 주수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팀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육아휴직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명희 실장은 또 다른 고민은 여성들을 상위 직급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인만큼 직위와 직급에도 성평등 문화가 자리잡고 있을 법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 관리자(사무직 기준) 비율은 13.3%에 불과하다. 이 실장은 여성 직원이 상위 직급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기회의 평등이 아닌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여성 상위자 30% 달성을 목표로 두고 역산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면 될 지 비율을 정했습니다. 자리가 난다면 그 자리에 적합한 여성 직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해에도 여성임원 3명을 발탁했고, 올해도 정해진 비율만큼 여성임원이 배출됩니다. 또한 승진시 제도적으로 여성을 별도 고려하고 있는데 심사에서 일정 수준이 되면 여성을 상위직 이상으로 보임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기업 노력에 정부의 지원과 제도 보완이 매칭될 필요가 있다. 이 실장은 현실적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언급했다.

“워킹맘들이 양육 문제로 육아휴직을 하지만, 가게 유지를 위해 단기간만 휴직을 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서 최대 100 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원문 바로보기](#)

협회 동정 및 정책

1. 신규 가입 회원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UNGC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2. COP/COE 제출 회원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동명전기(주)
- 한국도로공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SK 이노베이션(주)
- 국민연금공단
- 현대아산

미제출 회원사는 조속히 COP/COE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2016 년 1/4 분기 연회비 납부 대상 회원

STX, SK 이노베이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그린크로스코리아, 기업책임시민센터, 나인, 로고스피아이티, 로이상사, 리인터내셔널, 미래에셋, 바이오포커스, 사람과세계 경영학회, 사학연금, 산업은행, 산업정책연구원, 서울문화재단, 성주그룹,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아프리카사랑재단, 열매나눔재단, 우리은행, 우영종합물류, 제닉, 제주관광공사, 카라반이에스, 코스리, 포스코, 한국남부발전, 한국능률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환경재단, KT, LG 화학, SK 텔레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구미시청, 국제뇌교육협회, 군포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금성에이스산업, 대한주택보증, 동아원, 슬로워크, 신한은행, 유니베라, 조은시스템, 팬코, 풀무원, 하나은행,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현대아산, 현대증권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 정책

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우편번호: 04540

Tel: 02) 749-2149/50 Fax: 02) 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담당자: 임애화 연구원